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10일 수요일 음 3월 2일 (9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1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1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2/19℃
모레	구름많음	12/20℃

맑음

제주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 낮 최고기온은 17~18℃로 예상된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해뜸 06:10 해짐 19:01		달뜸 06:52 달짐 20:56
물때	만조 11:30 —:—		간조 05:58 18:04

자외선지수 높음 / 산불가능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교황, 가자전쟁 이스라엘 인질 가족 만나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

8일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과의 만남.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은 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6개월을 맞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을 만났다고 교황청이 이날 밝혔다.

AFP, AP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사도궁 내 서재에서 인질 6명의 가족, 친척과 1시간가량 대화했다. 이날 알현은 조용하게 이뤄졌다.

이들 가족은 각각 품 안에 인질로 붙잡혀간 가족의 얼굴과 이름이 인쇄된 종이를 들고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당시 가자지구로 끌려간 250여명 중 129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중 34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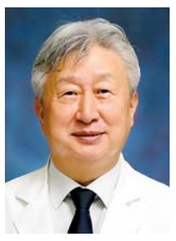
교황은 전날인 7일 미사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이끌면서 "특히 죽음에 내몰린 우크라이나를 위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위해 영원한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황은 가자지구 전쟁이 두 달째를 넘어가던 지난해 11월 22일에도 이스라엘 인질 가족과 만났으며, 같은 날 가자지구에 가족이 있는 팔레스타인인도 만났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고대로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15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건강&생활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대해



한 치 화
제주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한 의과대학생이 출연했다. 중학생 때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치료받았다고 한다. 3년에 걸친 긴 치료 기간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은 물론 환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길을 택한 인간 승리의 청년이었다. 소아암들은 성인의 암들과는 달리 치료 성과가 매우 우수하며, 완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래서 미래를 꿈꾸면서 성장하고 있는 소아암 환자들은 가능성만 있다면 완치를 목표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어린아이들에서 가장 흔한 암이지만 모든 나이에서 발병한다. 80년 전 이들에게 항암제를 투약한 파버(Farber) 선생님의 첫 도전을 시작으로 많은 의사들의 노력 덕분에 지금과 같은 항암치료방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표준항암치료를 통해서 앞에 소개한 학생처럼 완치돼서 평생토록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혈액암들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항암화학치료법들이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의 치료방식을 근간으로 얻어진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소수의 몸속에 남아 있는 백혈병세포들을 박멸하기 위해 많은 양의 항암제 투여와 함께 온몸에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핏속의 각종 세포들을 만들어 내는 조혈모세포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아 수혈하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치료가 도입되면서 항암제만으로 완치되지 못하는 일부 환자들까지 완치시킬 수 있게 됐다.

최근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건강한 T림프구들을 수집해서 백혈병세포들만 골라 파괴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가한 다음 인공배양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 수혈하는 'CAR-T 세포' 치료가 재발한 일부 환자들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에 대한 연구 결과 발병 나이와 백혈병세포들의 수, 백혈병세포들이 갖고 있는 염색체와 관련 유전자들의 변화, 백혈병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들의 존재, 그리고 초기 항암치료에 대한 반응 속도 등에 따라서 완전관해(백혈병이 보이지 않게된 상태) 확률과 생존기간, 재발률에 큰 차이가 있음이 알려졌다. 예후가 가장 우수한 표준형 급성림프구성백혈병(1세 이상 10세 미만, 총백혈구수 5만/uL 미만, 전B세포 항원 존재)은 기존의 항암화학치료만으로도 절반 이상 완치에 도달하는 저위험군이다. 그러나 기존의 표준치료로 경과가 좋지 않았던 고위험군과 초위험군일지라도 강화된 최신 항암치료를 통해서 저위험군과 비교해서 치료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1983년 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에게 시행한 국내 최초의 동종골수이식에 참여한 이후 정년을 훨씬 넘긴 지금도 백혈병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비록 어린아이들의 수가 줄어든 시대이지만 발병 확률로 짐작해 보면 제주에도 소아 백혈병 환자들이 다수 있으리라고 본다. 짧은 글을 통해 이런 자녀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부모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열린마당

매화의 경고

양 재 헌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다. 봄의 전령이라고 불리는 매화는 평년 기준 2~3월에 꽃을 피우는데 올해는 1월 중순 제주도에서 첫 개화가 관측됐다. 봄기운을 이르게 가져다주는 꽃들이 반갑지만, 이를 바라보는 속내는 복잡하다. 꽃 개화 시기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꽃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일찍 핀다는 것은,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의 '생태 시계' 또한 뒤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여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강경한 어조로 "지구 온난화의 시대(Era of Global Warming)가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Era of Global Boiling)가 도래했다"고 소리친 것 또한 이러한 이상 기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제주시는 이러한 이상 기후변화의 여러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가정 등에서 전기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과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점검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면 그 실적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발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기후 변화 대응 활동이다.

제주시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에너지(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2년 평균 사용량 대비 감축하였을 경우 감축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이상 기후를 예방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봄기운을 맞이하자.

거짓신고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고 승 립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경찰은 112신고 총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신속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112신고는 각종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방지 조치 등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하지만 이러한 112신고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거짓신고는 경찰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 행정력을 낭비시킨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짓신고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중대한 거짓신고의 경우 거짓신고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 112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 교통 등 총력적으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신고 출동이 지연되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1일 만우절에 거짓신고 9건을 적발해 그 중 7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고,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신고 근절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시민 스스로 거짓신고가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경찰력 낭비 및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점이 중요하다. 거짓신고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든든한 지킴이인 112, 더 이상 거짓신고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이 없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귤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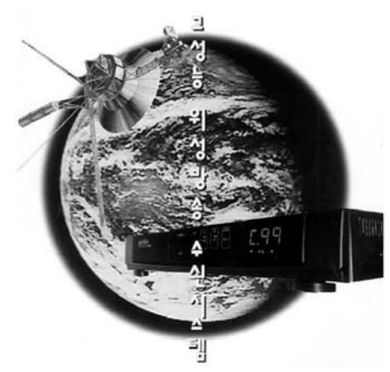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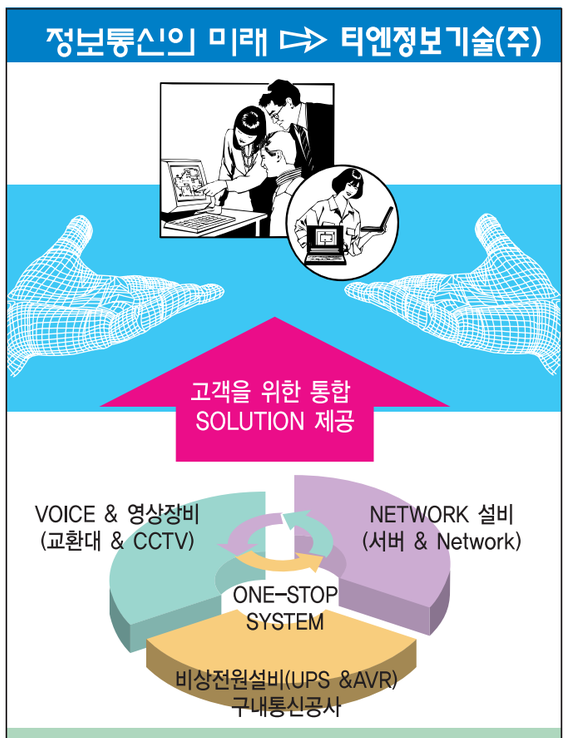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TN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